

임팩트 측정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임팩트 측정의 진정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번 임팩트 측정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진정성 있게 측정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만 찾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을 발전시켜보는 것입니다.
둘째, 실무진이 직접 측정하고 단계별로 실무진이 느낀 점과 실패의 경험도 공유해서 다른 재단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무형자산화의 첫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폐적 추정 과정에서 사용된 다양한 기준값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영리재단의 임팩트를 화폐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에 정답이나 대세는 없습니다.
그렇수록 값 산출에 사용된 기준값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저희를 포함한 많은 임팩트 재단들의 측정 경험 공유가 이 생태계에 더 많은 무형자산으로 쌓이길 바랍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원장

CSES | 사회적 가치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02.

사회적가치연구원_사회적 가치 연구공모전·펠로우십

Purpose

우리가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을
시도한 이유

2021년 측정 결과와 교훈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21년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의 첫 번째 Position Paper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공모전' 사업과 '펠로우십' 사업의 임팩트를 측정한 결과를 담았다.

영향력의 폭과 깊이

첫 번째 방법은, '영향력의 폭과 깊이(WDI: Width and Depth of Impact)'로 두 사업의 임팩트를 측정해본 것이다.¹⁾ 수혜자의 범위를 개인과 사회로 구분하였고 이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폭(Width)과 깊이(Depth)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조합된 네 가지 영역에 적합한 설문 조사 문항을 배치하고 각 질문의 취지도 밝혔다. Position Paper가 발행된 이후 여러 재단에서 이 임팩트 프레임에 대한 문의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사업 실무자로서 보람된 순간이었다.

한편,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하나의 지표와 숫자로 사업의 임팩트를 모두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 결과물, 지식, 활동 같은 성과가 개인과 사회에 환원되지만 매년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우리 조직에 남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조직 경계 내에만 있는가 아니면 사회에도 환원되는 것인가?와 같은 또 다른 고민을 갖게 되었다. 셋째,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서 펠로우의 임팩트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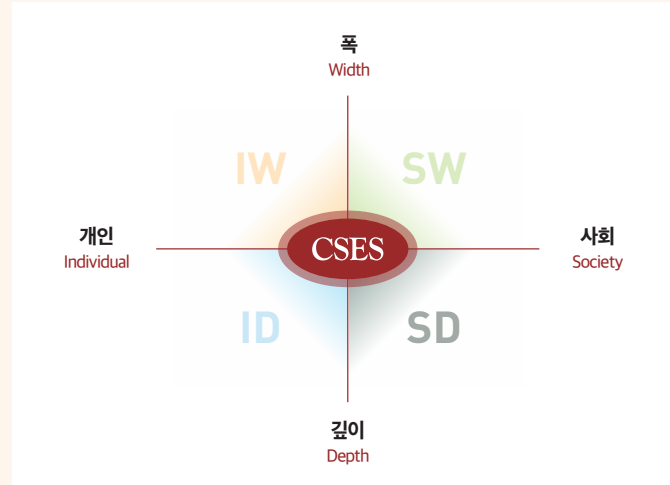
1)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2021),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우리에게 꼭 맞는 임팩트 프레임 짜기, 44-61p

2021년 임팩트 측정 프레임: 영향력의 폭과 깊이

(WDI: Width and Depth of Impact)

	개인(Individual)	사회(Society)
폭(Width)	IW영역	SW영역
깊이(Depth)	ID영역	SD영역



출처: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2021),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우리에게 꼭 맞는 임팩트 프레임 짜기, 49p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

이와 같은 아쉬움을 보완해보고자 두 번째 방법으로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을 시도해보게 되었다.²⁾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자원(인적, 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연구자, 연구물 등을 사회에 간접적으로 창출하게 되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무형자산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선행연구를 응용하여 먼저 취득원가 기반(연구논문작성 투입 비

2)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2021),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우리에게 꼭 맞는 임팩트 프레임 짜기, 62-68p

2021년 연구공모전, 펠로우십 자산가치 추정 결과

* 모든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사업명	연구 논문 작성 투입 비용 기준 자산가치	상금/장학금 기준 자산가치	전문가 평가 기준 자산가치 (1차 조사)	전문가 평가 기준 자산가치 (2차 조사)
연구공모전·콜로키움	1.56억 원	3.71억 원	7.07억 원 (2.59억~60억 원)	10억 원 (4.55억~77.05억 원)
펠로우십		1.05억 원	3.42억 원 (1.27억~30억 원)	4.93억 원 (2억~32억 원)

출처: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2021),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우리에게 꼭 맞는 임팩트 프레임 짜기, 67p

용, 상금/장학금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측정해 보았다. 그런데 해당 연구물과 연구자들이 앞으로 사회에 미칠 긍정적 임팩트가 제대로 추정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어, 델파이 조사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고, 취득 원가(상금/장학금) 기준 자산가치에 비해 전문가 평가 기준 자산가치는 약 3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비영리재단 생태계에서는 첫 시도로서 지니는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어떤 지배적이거나 유명한 방법론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시도 자체를 부정한다면 영원히 기부금 투자 대비 효과를 말할 화폐적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정해도 되냐'는 의심 섞인 질문도 많이 받았다. 더 많은 측정 경험과 사례를 통해 표준화, 신뢰성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2022년 측정 배경과 목표

2021년 11월 Impact Foundation Forum에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2년 임팩트 측정 포부를 밝혔다. 특히 무형자산가치 추정의 경우는 과정과 결과를 잘 정리하여 생태계에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는 먼저 시작해본 기관으로서 생태계에 기여하고 다른 실무자들의 어려움,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계에 토론 거리를 제공해서 누군가에 의한 더 나은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까?

2022년 측정 대상 사업과 측정방법론을 고민하는 첫 회의에서 우리는 피터 드러커의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정량화되기 어려운 임팩트이지만 측정해놓고 보니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 구체화된 것이다.

사업 소개

연구공모전

CSES 연구공모전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가치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과 연구 결과물의 내용·형식적 제약을 없앴고, 단계별 제로 베이스 경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SES 연구공모전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연구자들이 본인의 학문 영역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해보거나 연구 영역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펠로우십

CSES 펠로우십은 참신한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원)생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공모전과 마찬가지로 결과물 형태에 제약을 두지 않기에, 결과물이 잡지, 웹페이지, 영상, 논문 등 다양하다. 월례 세미나와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재들이 교류를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고, 장기적인 멤버십을 형성하며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21년처럼 '영향력의 폭과 깊이(WDI)'로 2022년에도 측정한다면 1년만에 눈에 띄는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았다. 설령 작년보다 1점을 더 높이자면 목표를 세우더라도 어떤 블랙박스(프로그램 노하우, 담당자의 커뮤니케이션, 홍보 방법, 이전에 창출된 우수한 결과물의 활용 등)를 통해 더 많은 임팩트가 창출되는지 알아야 할 텐데 대략 짐작되는 요소만 해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2022년에는 '영향력의 폭과 깊이(WDI)' 측정은 잠시 쉬기로 했다. 그리고 2021년 측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 방법론을 고도화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측정 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의 목표

2021년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했을 때는 무형자산을 '연구물과 연구자'로 정의하고 연구공모전/펠로우십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화폐적 가치를 이와 같이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가치 산정 대상을 보니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물, 둘째, 연구자, 셋째, 노하우였다.

특히 연구/교육지원 사업의 노하우를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유사한 고민을 하는 비영리재단들과 자주 만나며 실무자로서 노하우의 가치를 반드시 측정해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비영리재단의 직원들은 영리 기업 직원에 비하여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임팩트 측정 결과가 비영리재단의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을 오랜 시간 담당해 온 직원으로서 조직에 어떠한 노하우를 자산으로 쌓고 있는지 가능해보고 싶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만의 차별성과 노하우를 전문가들도 인정해줄지 평가받고 싶었다.

연구물과 연구자의 경우는,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편이 많았지만 측정 결과가 '정말 맞나? 이렇게 봐도 되나?'라는 의심 섞인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측정 경험치를 축적하고 측정에 산정된 근거(준거가 된 유사시장 및 산출물),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의견까지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명성의 이슈보다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근거를 보며 같이 고민해보고 관심있는 누구나 인용해보거나 더 나은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한편, 2021년 말에는 '우리도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을 해보고 싶다'는 재단들의 연락이 많았지만 실제 2022년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모임이 시작되고 매월 학습의 시간을 거쳐 재단별 임팩트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 다수의 재단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 방법을 선택했으니 다른

재단들도 참고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을 단계별로 소상히 그려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임의 이름인 'Learning Community'의 취지를 살려 '학습 과정'을 '실무자의 목소리'로 담아내면 유사 사업을 하는 실무자들이 가장 쉽게 느낄 것이고 각자의 고민과 경험을 내어놓는 또 다른 유익한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 2022년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 목표

<p>측정 대상 사업인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의 자산가치를 연구자, 연구물, 노하우로 세분화하여 화폐적으로 추정한다.</p> <p>01</p>	<p>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 단계별 쟁점, 준비사항, 실행 경험을 공유한다.</p> <p>02</p>	<p>전문가들의 연구자, 연구물, 노하우에 대한 화폐적 가치 추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생태계에 공유한다.</p> <p>03</p>
--	---	--

Process of Monetization 화폐화 측정의 여정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 투입 비용과 취득원가 기준 자산가치 추정 사업 투입 비용(Input)

먼저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의 사업 투입 비용을 계산했다. 이어서 진행될 취득원가 기준 자산가치 추정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한 자산가치 추정값과 비교하기 위한 용도이다. 비용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는데, 사업비에는 연구공모전의 상금과 펠로우십의 장학금만 포함하였고, 상장, 시상식 행사, 우수작 선정 심사비, 설명회, 공고문 제작 등의 운영비는 제외하였다. 이 때, 인건비도 계산되어야 하나 본 분석에서는 산정의 어려움으로 제외하였다.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 사업의 투입 비용 계산

	연구공모전(3개년)	펠로우십(4개년)
사업비	4.6억 원	1.55억 원
운영비(인건비 제외)	0.65억 원	0.72억 원

취득원가(비용) 기준 자산가치 추정³⁾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한 무형자산가치를 추정하기 전에 실무진 자체적으로 취득 원가(비용) 기준의 자산가치를 추정해보았다. 학술 논문 한편의 가격을 추정하는 선행연구와 연구원 실무진의 경험적 근거를 종합하였다. 참고 문헌을 찾아 읽고 정리하는 시간, 집필하는 시간, 동료 연구자들이 검토하고 편집하는 시간 등을 계산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측정 결과를 참고하기 바란다.

³⁾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2021),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우리에게 꼭 맞는 임팩트 프레임 짜기, 64-65p

연구 논문 작성 투입 비용 추정 산식

연구논문 1편 작성시 평균 투입 시간 178시간

(선행연구 평균 25건 검토 및 정리 67시간+집필 95시간+검토 및 편집 16시간)

x CSES 연구결과물 총 52편 x 연구자 시급 25,000원(시간강사 강의로 1/3 수준)

결과적으로, 지난 4년간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 사업으로 출판된 연구결과물의 취득원가기준 자산가치는 2.3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작년 1.56억 원 대비 48% 상승하였다.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 단계별 쟁점, 준비사항, 실행 결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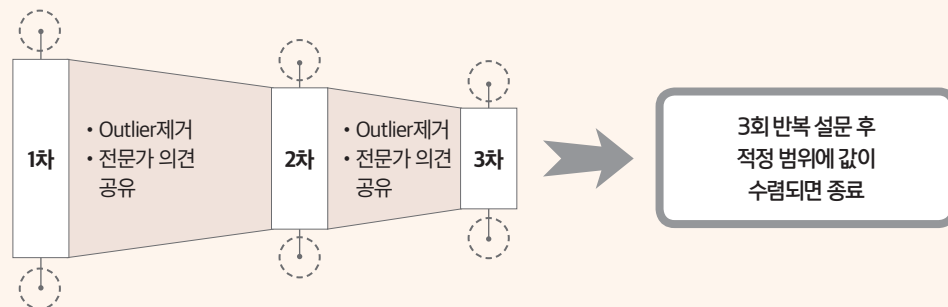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 사업의 자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산의 본래 정의에 따르면 미래에 창출될 가치의 예측이 필요한데, 델파이 기법이 미래 예측 기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영리 영역에서도 자산가치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방법이 존재해 어떤 관점과 방법이 정답이라는 합의는 없는데,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관점을 서로 공유하고 타협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껏 재단 연구·장학 사업의 자산 가치를 추정할 선례가 없어 이를 추정하는 활동 그 자체에 대해 '날것 상태(raw)'의 의견이 필요한데, 델파이 기법이 그에 맞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2021), 66p"

위와 같이 연구물에 대한 취득원가(비용)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 첫째, 선행연구를 인용하였으나 생태계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도 아니며 맞고 틀리고의 이슈가 아니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나 아니냐는 다수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 둘째, 각 연구물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현재 학계에서 지배적으로 활용하는 Impact Factor(학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저명한 수준)로 학술논문의 학문적 가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셋째, 무엇보다도 연구물 1건을 최종 산출물(Output)로 보고 추정한 것이다. 각 사업에서 연구자에게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1건의 산출물이 아닌, 연구자가 해당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기능일 수도 있다.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을 경험한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지, 그들로 인해 창출된 연구물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등 미래 시점의 가치도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자체적 집계 외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델파이 기법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교환하면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다.⁴⁾

델파이 조사 개요

델파이 조사법은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반복하여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약 2~3번의 설문 조사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게 됨



전문가 델파이 조사 1단계 -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2021년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기반한 무형자산가치 추정을 할 때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던 이슈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짚어 보기로 하였다. 2021년에는 자산을 '연구자, 연구물'로 통합 정의하였고 전문가들에게는 이 둘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의 가치를 질문하였다. 2022년에는 각각의 가치를 알아보는 질문을 한다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준(Proxy)도 세분화되고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구조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자, 연구물, 노하우를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노하우'에 대한 논의 내용을 예시로 소개로 해보면 아래와 같다.

기간: 2022년 7월 5 ~ 14일

참여자: CSES 김보영 수석연구원, 트리플라잇

● (CSES) 노하우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 (트리플라잇) 노하우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개인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조직 내에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누가 그 일을 하든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하고, 차별점 및 비교 우위 등이 무엇인지 구별되고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 (CSES) 한 사람의 노하우가 시스템화 된다면, 이것이 노하우라고 볼 수 있을까? 개인의 노하우가 아닌 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가치가 향상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Valuation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무형자산을 회계 관점으로 바라본 김범석(2019)의 '커피 핸드 드립 기술도 무형자산이 될 수 있을까?'⁵⁾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① 식별 가능성(해당 자산을 다른 자산과 분리해서 측정 및 인수할 수 있어야 함), ② 기업의 통제 가능성(기업이 해당 자산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보유 여부), ③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해당 자산을 활용할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미래 현금 유출이 감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인정된다고 한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CSES 사업의 노하우는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그러나 인적 자원, 기술 평가, 지식재산 등의 다른 영역에서는 무형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더라. (조사 자료 생략)

● (트리플라잇) CSES에서 조사한 바대로, 전통적 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 등에 대한 무형자산가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빅테크/바이오 기업들이 창출한 무형자산가치를 기존의 기업회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5)

김범석 (2019). Donga Business Review. Retrieved from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6/article_no/9014/ac/a_view

의견들이 있다.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인적자산/노하우 등은 원가법에 의해 우선 평가하는 것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동 유형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산으로 보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M&A 사업 결합 시 Valuation에 반영되어 간접적으로 계산되거나 무형자산 인식 기준에 따라 측정된다. 전통적인 회계 측면에서는 논쟁이 있지만 지식재산이나 기술 평가 시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 같으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듯하다.

결론적으로 교육/연구지원 사업의 노하우를 전통적 회계 관점으로 본다면 어렵겠지만, 다른 영역의 관점으로는 측정 가능하니 그 여부 자체도 전문가에게 질문하기로 하였다. 연구자, 연구물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무형자산이라고 보고 따로 질문하지는 않았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2단계 - 전문가 배포용 자료 준비 및 전문가 섭외

전문가들에게 배포할 자료를 준비하였다.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 소개 자료이다. 2021년에는 처음 진행하다 보니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해서 전문가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다 보니 자료집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무진의 개인적 평가가 담긴 자료는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 16명 중 1인이 “현 자료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보지도 못했었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 소개 자료는 분량을 최소화하고 자료 구성은 사실 자료(Fact)와 실제 결과물 위주로 구성하였다. 무형자산가치 추정에 도움될 만한 추가 조사 자료나 실무진에서 구조화한 자료는 평가에 편중된 의견(Bias)을 줄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핵심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타 전문가의 논리를 상호 참고하면서 의견을 수정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의뢰자는 논리를 공고화할 수 있다.

전문가 배포용 사업 소개 자료의 목록

사업 목적, 운영 프로세스, 추진경과, 우수작/펠로우 선정 기준, 양적 성장 집계 결과, 대표 우수사례, 2021년 조사 시 영향력의 폭과 깊이(WDI) 설문 조사 결과 일부, 선정된 사람 목록

2021년 조사의 경우, 전문가 16명을 섭외하여 1,2차 모두 응답한 전문가는 13명이었는데 올해는 1, 2, 3차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전문가 20명을 섭외하였고, 1, 2, 3차 모두 응답한 전문가는 16명이었다. 2021년과 마찬가지로

지로 응답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연구지원 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와 잘 모르는 타 분야 전문가를 골고루 섭외하였다. 2021년에 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비율을 약 50%씩 맞추고 회계 전문가를 추가하였다.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목록

No.	전문 분야/직무/직책	No.	전문 분야/직무/직책
1	사회적기업 변호사	11	리더십/코칭 컨설턴트, 이사
2	민사소송 변호사	12	전략 교수
3	임팩트 투자 대표	13	조직행동 전공 교수
4	임팩트 투자 대표	14	조직행동 전공 교수
5	임팩트 투자 담당자	15	행정 전공 교수
6	회계사	16	회계 전공 교수
7	회계사	17	마케팅 전공 교수
8	감정평가사	18	사회혁신 전공 교수
9	변리사	19	국책연구원 임원
10	사회적가치 측정기관 대표	20	비영리재단 연구소 실무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 3단계 - 전문가 1차 조사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는 2022년 7월 18일~7월 25일에 20명에게 진행했는데, 결론적으로 1차 조사 결과는 값 산출에는 활용하지 않고 다음 차수 조사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2021년에 조사해본 경험이 있음에도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다. 실패를 통한 학습이라고 했던가?

다른 재단들을 위해 경험을 공유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질문이 애매 모호해서 가치 산정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1차 조사에서의 질문은 “연구공모전의 “연구물”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였는데 응답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 편의 연구물의 가치인지, 전체 연구물의 가치를 묻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실무자 입장에서 한 편의 가치만 보거나 총 가치로 산출된 답변을 역으로 평균을 구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값의 분산이 큰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각 전문가가 제시한 가치 산정의 기준이 상이함은 일괄적으로 단위를 바꾸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취한 조치는 첫째, 1차 조사 의견을 통해 값을 얻기보다는 1차 조사 의견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과감히 질문지를 수정하고 전문가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이 질문지를 잘 구성하여 생태계에 확산하려는 목적도 있으니 질문-응답 서식의 개선사항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개방형 주관식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물 1편이 아닌 '산출된 연구물 전체의 가치'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실무진 입장에서 궁금했던, 일종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연구물, 연구자, 노하우의 '내용연수'를 질문하였다. 그동안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 사업을 담당했던 3명의 실무자들의 경험적 감각에 의하면, 이 사업으로 연을 맺었던 연구자/활동가들과 연락을 자주하거나, 주요한 행사로 만나게 되는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연대감 등이 2~3년 정도 지속되는 것 같았다. 또한 논문, 도서 등의 연구물도 계속해서 최신 연구에 인용되거나 혹은 반대로 저명한 연구가 아니라면 3~5년 정도 다른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최근 연구 실적"이라고 표현할 때도 최근 3~4년 사이의 연구 실적을 의미한다. 노하우 역시 대략 3년 정도 쌓이면 또 다른 담당자로 바뀌거나 그 노하우에 변화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잠정적인 미래 가치도 추정하는 무형자산가치 델파이 조사 방법이나 '내용연수'도 질문해야 한다는 데에 중론이 모아졌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4단계 - 전문가 2차 조사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는 2022년 7월 29일 ~ 8월 9일에 20명에게 진행되었으며 질문지는 아래와 같다.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

2022 델파이 조사 질문지 (연구공모전)	
1	연구물 연구공모전의 "지난 3년 간의 총 연구물"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화폐적 가치를 위와 같이 추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연구공모전의 "연구물"을 감가상각한다면, 내용연수는 평균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연구자 연구공모전의 "지난 3년간의 총 연구자"는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화폐적 가치를 위와 같이 추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연구공모전의 "연구자"를 감가상각한다면, 내용연수는 평균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노하우 연구공모전의 "노하우"를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1	"예"라고 응답한 경우 연구공모전의 "노하우"를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면, "지난 3년간의 총 노하우"는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2	화폐적 가치를 위와 같이 추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3	연구공모전의 "노하우"를 감가상각한다면, 내용연수는 평균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4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연구공모전의 "노하우"를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점을 보완해야 무형자산으로 valuation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기타 위 질문/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위 요소 외에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 사업 소개 자료 시 추가/삭제되어야 하는 정보 등)

전문가들에게 조사 보안을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더니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질적 수준 평가 자료 문의, 자산 정의 기준 문의, 감가상각/내용연수 개념 적용 가능 여부, 화폐 가치 추정 결과의 활용 목적 등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진 토론 및 의사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연구원에서 기준을 제시해서 전문가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다. 결과적으로 답변보다는 델파이 조사 질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회신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문 사항에 대해 CSES가 고민한 내용과 답변

1. (전문가 의견)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자료 필요

- A. 정확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각 연구자, 각 펠로우, 각 연구결과물의 수준을 직접 확인해야 할 것임. 그러한 질적 수준을 알지 못한 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또한, 측정자도 마찬가지로 연구 분야나 연구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음. 이번 조사를 예로 들면,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무리였는지, 현재 연구 현황에 비추어 각 연구물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임
- B. 논문의 질적인 수준을 더 안다면 좀더 정교하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값에 큰 차이는 또 없을 것 같음
→ (CSES 답변) 연구물, 연구자의 질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여러 지표들(예: IF, H-Index 등)이 존재하나, 이들이 가치를 표현하는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여, 연구물과 연구자를 자산 가치라는 명목으로 통합적으로 여쭙 보았습니다.

2. (전문가 의견) 자산 정의 기준 관련

- A. 연구자의 가치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인지 아님 연구자 자체의 고유한 가치인지가 모호함
→ CSES의 지원이 해당 연구자에게 얼마나 CSES에 연대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해보기 위함입니다. 연대감을 측정하는 다양한 proxy가 있을 것 같습니다.
- B. 펠로우십의 경우 보다 명확한 성과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해주시면, 가치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CSES 답변) CSES 펠로우십은 사회적가치 인재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혹은 기존의 경험이 확장되는 데 마중물이 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펠로우들에게 동일한 시간/기준을 주지는 않습니다.

3. (전문가 의견) 개인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못했음. Valuation을 위해 감가상각을 포함시킨 점은 알겠지만, 기관의 사업의 요소들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 (CSES 답변)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다만 연구자, 연구물 등에 대한 CSES의 기여도가 장기간 지속되기 보다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감가상각의 개념과 유사하여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으나 향후 용어의 대체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혹은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4. (전문가 의견) 화폐가치 측정 후 해당 수치를 활용할 대상(ex. B/S에 반영, 단순 연구리포트, 기업 소개 등)에 대한 예시 (어떻게 활용될지에 따라 추정 판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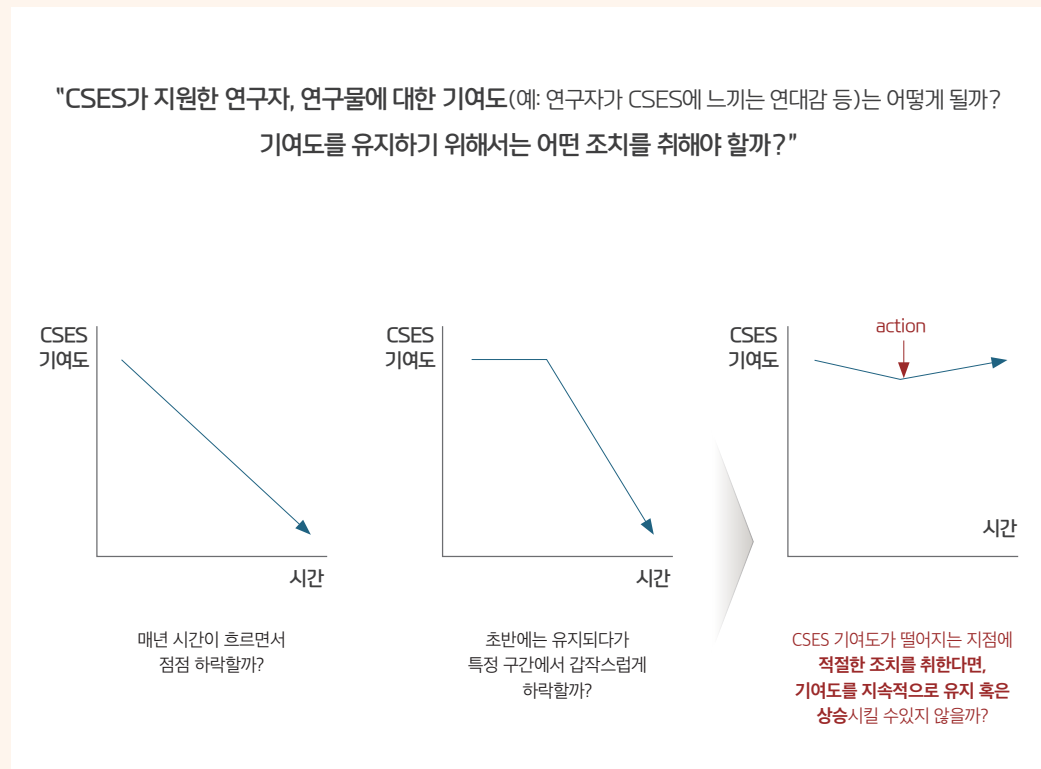
- (CSES 의견) 금번 조사 시 수치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1)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CSES 활동들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 2)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시는 지를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제안해주신 가치 판단 기준에 부합하여 가치를 높이기 위해 CSES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자료는 갈더라도 사업 의사결정용인지, 대외 홍보용인지 등에 따라 다르게 cooking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5단계 - 전문가 3차 조사

전문가 델파이 3차 조사는 2차 조사에 회신이 왔던 17명에게 2022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7일 동안 진행했으며 질문지는 2차 조사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대한 질문이 많아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감가상각/내용연수 질문의 취지'라는 제목으로 설명 그림을 추가하였다.

'사업의 효과가 언제 사라지는 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의 수혜를 받은 연구자들이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느끼는 연대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해답을 찾고 싶어서였다. 임팩트를 수혜자의 변화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그 연구자, 연구물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 혹은 기여할 수 있을지, 그들이 느끼는 연대감, 연결 고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면 어떤 사업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지와 같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구자, 연구물, 노하우의 내용연수를 살펴보는 이유



2022년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 결과

화폐적 추정 결과값 비교

위의 과정들을 거쳐 결과적으로는 연구공모전의 지난 3년간 무형자산가치는 연구물 11.45억 원, 연구자 18.2억 원, 노하우 5.67억 원, 펠로우십의 지난 4년간 무형자산가치는 연구물 4.4억 원, 연구자 8억 원, 노하우 3.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각 연구물, 연구자, 노하우의 가치를 질적으로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합산한 값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의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 결과

사업명	투입비용 (사업비)	취득 원가 (연구논문 작성 투입비용 기준)	전문가 평가 기준 자산가치 (붉은 글씨 중위값, 괄호 안은 중위값 기준 75% 분포)	전문가 평가 기준 내용 연한 (붉은 글씨 중위값, 괄호 안은 중위값 기준 75% 분포)
연구공모전 (3개년)	4.6억 원	2.31억 원	연구물 11.45억 원 (7.42~18억 원)	8.5년 (5~10년)
			연구자 18.2억 원 (10.2~36억 원)	5년 (3~15년)
			노하우 5.67억 원 (3.77~7.5억 원)	6년 (3~10년)
펠로우십 (4개년)	2.27억 원		연구/활동물 4.4억 원 (2.7~8.1억 원)	10년 (5~10년)
			연구자/활동가 8억 원 (3.1~10.2억 원)	10년 (3~15년)
			노하우 3.2억 원 (2.03~6억 원)	5년 (3~10년)

*모든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Outlier 제외 기준은 "Q3 이상, Q1 이하"로 하여 약 75% 정도 남기고자 하였음(조사 횟수가 적기 때문에 기준을 좁게 잡았음)
 ***전문가 평가 기준 자산가치의 경우, 1, 2차 조사 결과값 생략

연구물, 연구자, 노하우의 가치를 단순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 비용(사업비) 대비 전문가가 평가한 사업의 가치가 몇 배라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본 사업이 연구물 1편의 가치보다도 수혜자(연구자)의 변화를 좀 더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투입 비용 대비 연구자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연구공모전의 경우 투입액(사업비) 4.6억 원 대비 연구자의 가치는 18.2억 원으로 약 4배 많고, 펠로우십의 경우에는 투입액(사업비) 2.27억 원 대비 연구자의 가치는 8억 원으로 약 3.5배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Implications of Monetization Estimation 화폐화 추정의 시사점

전문가 델파이 조사로 도출된 평가 기준(Prox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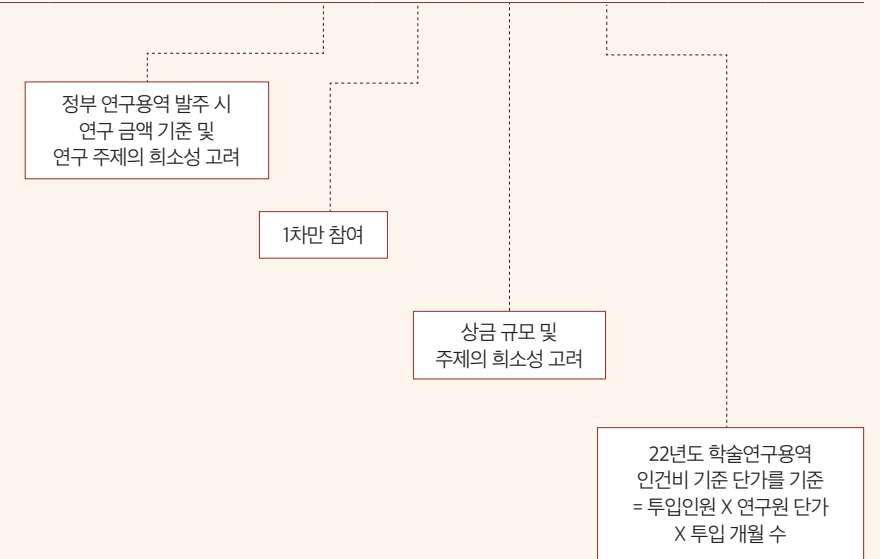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이 무형자산가치 화폐적 추정에 사용한 기준(Proxy)를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생태계에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면 제한으로 연구공모전의 '연구물' 기준(Proxy), 펠로우십의 '연구자/활동가' 및 '노하우' 기준(Proxy)만 넣었다. 나머지 내용은 추후 별도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CSES 연구공모전 '연구물' 기준(Proxy) 및 필요 데이터

연구물	평가 방식	case별 계산 산식	기준(Proxy)	측정 활용 값	비고
원가 접근법		Min (공모전 접수물 편당 상금액) X 공모전 접수 편 수 + 편당 지원 금액 X 콜로키움 접수 편 수	1) 공모전 편당 최소 상금액 2) 콜로키움 편당 지원 금액	1) 100만 원 2) 250만 원	투입 원가
		연구자들이 받는 상금액 총액	연구자들이 받은 연도별 상금액 합계	6억 원	
비교 접근법		사업에 들어간 총 비용 X (1+부가가치율)	1) 총 사업 원가 2) 부가가치율	1) 5억 원 2) 10%	원가 X 배수
		(1) Σ(연도별) (연구공모전 프로그램 연 간 예산(원가) X 배수) (연도별 상각률 적용)+ (2) TOP 저널에 게재 논문에 지급하는 상금	1) 총 사업 원가 2) 배수 : 도서관 투자 수익률 3) 연도별 상각률 3) TOP 저널 게재 논문 상금	1) 2) 4배 (upper bound, 3~4배) 3) 30% 4) 5,000만 원	
		상금/장학금 기준 원가 X 배수	1) 상금/장학금 기준 원가 2) 배수 :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서비스 가치	1) 3.71억 원 2) 2	
		Σ (연구물 유형당) 단가(1) X 게재 논문 수	1) 박사학위논문 편당 가치 2) 석사학위논문 편당 가치 3) 해외학술논문 편당 가치 4) 국내학술논문 편당 가치 5) 도서 편당 가치 6) 공모전 제출 편당 가치	1) 4,713만 원 2) 1,504만 원 3) 4,293만 원 4) 2,108만 원 5) 3,399만 원 6) 100만 원	연구물 기준
(1) Σ 연도별 작성된 성과물 가치 = Σ ((논문 작성 시간 X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월) X 성과물 편수 X 성과물당 저자수 (2) 사회적 할인율(상각률)	1) 논문 작성 시간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 가(책임연구원 기준) 3) 논문 1편당 저자 수(미국의학 학술지 평균 저자 수) 4) 사회적 할인율(상각률)	1) 95시간/편 (Tenopir & King, 2009) 2) 3,327,026원 3) 2.2인 4) 4.5%			
Σ (연구물 유형당 가중치(배수) X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 금액) X 연구물 유형당 편 수	1) 연구물 유형당 가중치(배수) 2)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우수학자) 2-3차년도 지 원 금액	1) 국내 : 1 해외 : 2 2) 5,000만 원			
(소규모 학술용역비 + 새로운 시도/접근 프리미엄) X 3년간 연구물 편 수	1) 소규모 학술용역비 2) 프리미엄	1) 3,000만 원 2) 2,000만 원			
(인건비+비인건비) X 연간 상시 DB 공개 월 수 X 팀수 X 3년	1) 인건비 : 현금 연구비의 50% 인건비 계상(국가연구개발력 신법 참고)	1) 1천만 원/월 (=2천만 원 x 50%)			
전문 콘텐츠 월 구독료 X 공모전 DB 구독자 수 X 기간(개월)	1) 전문콘텐츠 월 구독료 : DBR 월 구독료 2) 공모전 DB 구독자수 : 공모전 연구자 DB pool수 3) 기간	1) 18,900원 2) 약 1,100명 3) 36개월	전문 콘텐츠 (연구/활동물 중 선별)		
수익 접근법 (미래 가치 접근법)	투입원가 + 참가자 가치 + 결과물 활용 미래 가치 1. 투입원가 = 연도별 상금 지급액 X 연도별 가중치 2. 참가자 가치 = 참가 논문 수 x 참가 논문 편당 가치 3. 결과물 활용 미래 가치 = 연구물 편당 예상되는 미래 가치 X 가치(효익) 지속 기간 X 편차 계수 X 등재 건수	1. 투입원가 1) 연도별 상금 지급액 2) 연도별 가중치 2. 참가자 가치 1) 참여 논문 수 2) 참여 논문 편당 가치 3. 결과물 활용 미래 가치 1) 연구물 편당 예상되는 미래 가 치(연) 2) 가치(효익) 지속 기간 3) 활용도 편차 계수(가중치)	1. 투입원가 1) 2019: 2억, 2020: 1.51억, 2021: 0.92억 2) 2019: 1, 2020: 2, 2021: 3 2. 참가자 가치 1) 565편 2) 100만 원 3. 결과물 활용 미래가치 1) 1,000만 원/년 2) 10년 3) 50%	미래 가치 (할인율 미고려)	

연구물 유형당 단가

구분	평균값 (단위: 만 원)	응답 전문가 1	응답 전문가 2	응답 전문가 3	응답 전문가 4	응답 전문가 5	응답 전문가 6	응답 전문가 7
박사학위논문 편당 가치	4,713	1,000	3,000	12,000	10,000	3,000	1,996	1,996
석사학위논문 편당 가치	1,504	500	2,000	4,000	2,500		765	765
해외학술논문 편당 가치	4,293	2,000	4,000	4,000	10,000	3,000	3,527	3,527
국내학술논문 편당 가치	2,108	200	1,000	3,000	2,500	1,000	3,527	3,527
도서 편당 가치	3,399		5,000	5,000		5,000	998	998
공모전 제출 결과물	100							100



CSES 펠로우십 '연구자/활동가' 기준(Proxy) 및 필요 데이터

연구자/활동가	평가 방식	case별 계산 산식	기준(Proxy)	측정 활용 값	비고
측정 불가능		1) 향후 창출할 수 있는 가치(추가 연구물 생산 등)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기때문에 가치 추정하여 자산화하는 개념이 아닌 비용 처리			
원가 접근법		예산 투입 비용 ※ 연구물과 같은 편익 발생할 것으로 추정	예산투입 비용 case 1) 홍보비 case 2) 총 예산투입비	case 1) 1.7억 원 case 2) 3억 원	투입 원가
비교 접근법		(연구공모전 참여자 수 x SV 연구 참여율) X 국책연구원 연구자 연봉	1) 연구 참여자 수 (연구자 pool 인원수) 2) SV연구 참여율(유입율) 3) 국책연구원 연구자 연봉	1) case ① 1000명 case ② 1170명 2) 20% 3) 7,000만 원/년	참가자 or 선정팀 X 단가 (비교 시장 가치) + 추가 프리미엄
		합격팀 수 X 연구자/활동가 팀당 가치	1) 선발(합격) 팀 수 2) 연구자/활동가 팀당 가치 - case 1, 1000만 원 - case 2, 3000만 원	1) 31팀 2) 2,000만 원	
		펠로우 인원수 X 1인당 가치 (= 활동 기간(월) X 월 기준 단가)	1) 펠로우 인원수 2)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단가(월) 3) 활동 개월 수	1) 44명 2) 2,551,119원/월 3) 6개월	
		SV가 대표적 활동이 된 연구자 수 X 연구자 1인당 가치 + 네트워크 가치 (=펠로우십 DB pool 인원수 X 펠로우십 pool 1인당 단가)	1) SV가 대표적 활동이 된 연구자 수 (응답결과) 2)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단가 3) 펠로우십 DB pool 인원수 4) 펠로우십 pool 1인당 가치	1) 16명 2) 30,613,428원/년 3) 44명 4) 100만 원/1인	
		연구자 수 X 연구자 1인당 가치 + 연구자 수 X 핵심 인재 성장 비중 X 핵심 인재 1인당 추가 가치	1) 연구자 수 2) 연구자 1인당 가치(추정치) 3) 핵심 인재 성장 비중 4) 핵심 인재 1인당 추가 가치	1) 43명 2) 1,000만 원/인 3) 10% 4) 1억원/인	
		4년 누적 펠로우 수 X 분야유지율 X 석사급 연구원 평균 연봉	1) 4년 누적 펠로우 수 2) SV 전문 인력 될 확률 3) 석사급 연구원 평균 연봉	1) 170명 2) 10% 3) 5,000만 원	
		펠로우간 네트워크 가치 (=펠로우 DB pool 인원수 X 펠로우 pool 1인당 단가) + 연구물 가치 x 배수	1) 펠로우 DB pool 인원수 2) 펠로우 pool 1인당 가치 3) 연구자들에게 지급된 총 수상 금액 4) 배수	1) 44명 2) 100만 원/인 3) 1.65억 4) 2	연구물 가치 X 배수 + 네트워크 가치
수익 접근법 (미래가치 접근법)		(1) ∑ 연도별 연구물의 가치 (2) 할인율 고려	1) 연구물 화폐적 가치 2) 평균 연구 지속 기간 (연구물 생산 기간) 3) 연평균 할인율	1) 0.9억 2) 30년 3) 10%	연구물 미래 가치 (할인율 고려)
		할인율 미고려한 ∑ 연구물 가치	1) SV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 수 2) 연구물 가치 3) 평생 연구물 산출 편 수 - 연구물 1편 산출 주기 - 연구 지속 기간		연구물 미래 가치 (할인율 미고려)
		펠로우 연구자 수 X SV 연구 참여율 X 평균 연구 지속 기간 X 국책연구원 연구자 연봉 ※ 할인율 미고려, 인당 기준	1) 평균 연구 지속기간 2) SV연구 참여율(유입율) 3) 국책연구원 연구자 연봉 감안한 추정 평균치	1) 10년 2) 20% 3) 5,000만 원/년	

CESE 펠로우십 '노하우' 기준(Proxy) 및 필요 데이터

노하우	평가 방식	case별 계산 산식	기준(Proxy)	측정 활용 값	비고
측정 불가		- 노하우는 무형자산 아니라는 의견 : 6명(총 17명) - 무형자산으로 인식&추정을 위한 정보 부족으로 측정 불가 1명			
원가 접근법		사업 투입액 (상금 및 인건비)	사업 투입액 (상금 및 인건비)	6억 원	투입 원가
비교 접근법		연간 투입 예산 + 누적 연간 노하우 가치	1) 투입 예산 2) 연간 노하우 가치(추정)	1) 내용 확인 2) 1억 원/년	투입 원가 X 배수 + 추가 프리미엄
		SV 펠로우십 운영 비용 X 동종 업계 대비 경쟁 우위 지수	1) 운영 비용 2) 동종업계 대비 경쟁 우위 지수	1) 연구비 2억 원, 운영비 비중 30% 추정 2) 4배 추정	
		펠로우십 지원팀 수 X 팀당 가치 ※ 많은 팀이 참가하면 그만큼 다양한 이슈와 해결 방안들을 습득할 것이기에 지원팀의 규모를 가치 산정의 기준으로 잡음	1) 펠로우십 지원팀 수 2) 팀당 가치(추정치)	1) 203팀 2) 100만 원	펠로우십 팀 X 단가 (비교 시장 가치)
		연구물 가치 / (1+연평균 공모전 참가자 유입 증가율)	1) 연구물 가치 2) 연평균 공모전 참가자 유입 증가율	1) 3.1억 2) 30%(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	연구물 가치 기준
		연구물 가치(1년치) = ∑ (연구결과물 유형당) 건수 X 단가	연구물 가치(1년치)	1) 16억/4년	
		펠로우십 가치 X 노하우 집적 비율 + 희소 연구 가치	1) 펠로우십 가치 2) 노하우 집적 비율 3) 희소 연구 가치	case ① - 연구물+연구자 가치 = 25.8억 원 - 노하우 집적비율 5% (근거 없음) - 희소 연구 가치 0원 case ② - 펠로우십 가치 5.7억 원 - 연구물 노하우 집적 비율 : 10% (일반적인 공익사업에서 홍보나 관리 비용) - 희소 연구 가치 : 2,000만 원	연구자 + 연구물 가치 기준
		설립 직후 스타트업 기업 가치	설립 직후 스타트업 기업 가치	5억 원	기타

마무리하며

2021년에 이어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 사업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추정해보았다. 이때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의 유형을 연구물, 연구자, 노하우로 세분화해보는 등 추정 방법론을 고도화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추정에 사용된 기준(Proxy) 뿐만 아니라 추정 과정의 경험과 학습 내용을 생태계에 공개하여 경험적 지식을 알리는 데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무엇보다도 작년에 측정을 처음 시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험과 값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도를 할 수 있었다. 둘째, 실무 담당자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측정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였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을 기록할 수 있었다. 만약 제3자가 집계해준 자료만 봤다면 전문가들의 주관식 응답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었을 수도 있고 각 측정단계별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 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에 기준값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델파이 조사에 정성껏 응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